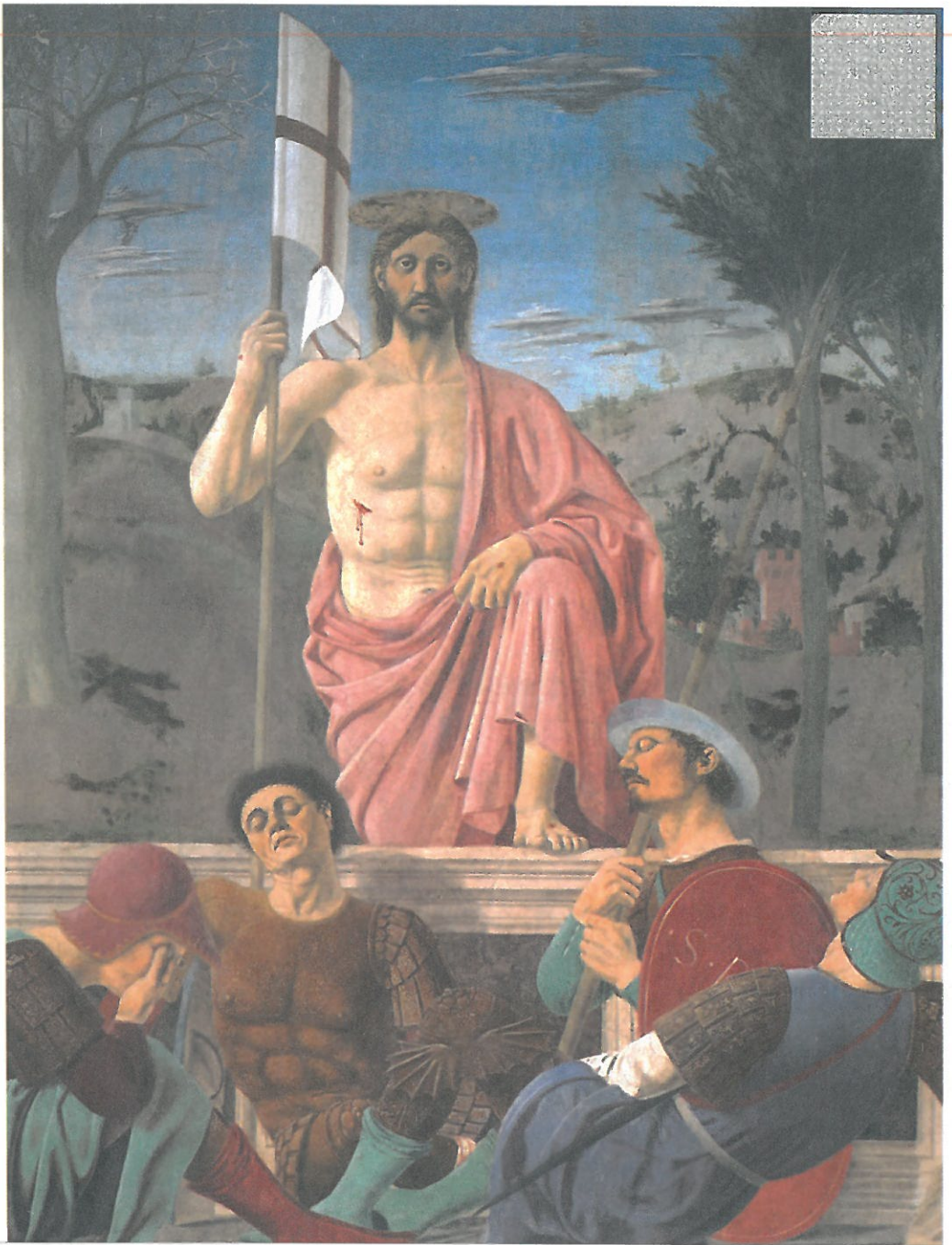


제2496호  
2024년 3월 31일(나해)

주님 부활 대축일



### 그리스도의 부활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Piero della Francesca, 1416-1492) 1463~65년,  
프레스코와 템페라, 225×200cm,  
산세폴크로 시립 미술관, 이탈리아

<부활 감사송 1: 파스카의 신비>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밤(날, 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 주님 부활 대축일

## 파스카 성야 미사

**제 1 부 성야의 장엄한 시작, 빛의 예식**  
(불 축복과 파스카 초의 마련, 행렬, 파스카 찬송)

### 제 2 부 말씀 전례

**제1독서** | 창세 1,1-2,2<또는 1,1,26-31>

**화답송** | 시편 104(103),1-2,7,5-6,10과 12,13-14,24와 35<◎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제2독서** | 창세 22,1-18<또는 22,1-2,9,10-13,15-18>

**화답송** | 시편 16(15),5와 8,9-10,11<◎ 1>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제3독서** | 탈출 14,15-15,1

**화답송** | 탈출 15,1,2,4-5,6,17-18<◎ 1,2,4>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제4독서** | 이사 54,5-14

**화답송** | 시편 30(29),2와 4,5-6,11-12,13<◎ 2,13 참조>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제5독서** | 이사 55,1-11

**화답송** | 이사 12,2-3,4,5-6<◎ 3>

◎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제6독서** | 바룩 3,9-15,32-4,4

**화답송** | 시편 19(18),8,9,10,11<◎ 요한 6,68>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제7독서** | 에제 36,16-17,18-28

**화답송** | 시편 42(41),3,5,7,12,13; 43(42),3,4<◎ 42(41),2>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서간** | 로마 6,3-11

**복음환호송** | 시편 118(117),1-2,16-17,22-23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복음** | 마르 16,1-7

### 제 3 부 세례 전례

(성인 호칭 기도, 세례수 축복, 물 축복, 세례 서약 갱신)

### 제 4 부 성찬 전례

**영성체송** | 1코린 5,7-8 참조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었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 주님 부활 대축일

## 낮 미사

**입당송** | 시편 139(138),18,5-6 참조

**제1독서** | 사도 10,34,37,43

**화답송** | 시편 118(117),1-2,16-17,22-23<◎ 24>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또는 ◎ 알렐루야.)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제2독서** | 콜로 3,1-4<또는 1코린 5,6,8>

###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군계	민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음환호송** | 1코린 5,7,8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었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복음** | 요한 20,1-9

<또는 마르 16,1-7 또는 저녁 미사에서는 루카 24,13-35>

**영성체송** | 1코린 5,7-8 참조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었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최광희 마태오 신부 | 문화홍보국장

# 아직 깨닫지 못한 이의 달리기

이 글을 읽고 계실 우리 교우분들 중에는, 서로 '부활을 축하한다.'며 나누고 있을 인사가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평범한 감정들을 스스로 지켜보며, '사순 시기를 제대로 보내야 부활을 기쁘게 맞이한다고들 하던데, 그러지 못한 내 탓인가.' 하며 씩씩해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부활은 신앙의 완성을 선포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 대신, 달려갈 목표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희망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그것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을 보고 믿게 되었다는 말이 무색하게도, 성경은 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라고 단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한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20,9 참조) 심지어 같은 장면을 전하는 루카복음에 따르면, 사도들은 단순히 이해력이 떨어지는 수준조차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여성들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이야기가 '헛소리'처럼 느껴졌다고 하니까요. (루카 24,10-11 참조)

하지만 신앙이 바닥을 드러낸 것 같은 오늘 이 순간이 찬란한 변화의 첫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곧 동료

인 토마스에게 '주님을 뵈었소.' 하고 고백하게 될 것이며 (부활 제2주), 예수님과 화해하여 용서를 받고(부활 제3주), 급기야는 공포에서 벗어나 집 밖으로 뛰쳐나가 박해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부활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이 드라마 같은 변화의 시작에는 '달리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을 전하는 여인들의 말을 전혀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재빨리 달려갑니다. 무덤까지 달리는 것은 굳이 사도라야 할 수 있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하고 작은 일이 씨앗이 되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두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잡힐 것이 두려워, 끝까지 집 안에서 움직이기조차 거부했다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무덤까지 달려가는 것밖에 없었지만, 제자들은 일단 최선을 다해 달려며 예수님의 소식에 호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의 소식을 전달받고 출발선 상에 서 있는 사도와 같습니다. 벅찬 행복감이 마음에 차오르지 않는 것을 의아해하며 그냥 집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최선을 다해 일단 부활의 소식이 들려온 곳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이제 남은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 그리스도의 부활

오늘의 성화는 이른 아침 병사들이 잠들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거의 움직임이 없어 보이지만 엄숙하고 고요함 속에서 힘이 넘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림속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마주보며 우리는 그분께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묵상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화 해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담당

##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최준익 막시모 | 가톨릭 찬양 사도

어느 날,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새벽까지 청년들과 함께하는 밤샘 음악 피정을 맡아 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피정의 주제를 찾기 위해 성경을 보던 중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아!' 할 정도로 마음에 와 닿아 머물렀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허락된 삶 그리고 지금껏 저 막시모를 이끌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제가 올려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바로 코린토 1서 15장 10절에 나오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만나 제 고백으로 삼을 수 있게 되면서 제 마음 속에 많은 기쁨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피정 후 후배들과 식사를 하며 각자의 신앙에 대해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눌 때였습니다. 한 후배가 저에게 “선배님은 ‘허락해 주시면...’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시네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허락’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허락’이라는 말은 수동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듯 하지만, 주님께 받은 큰 사랑에 감사함을 느끼며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허락’은 오늘을 더 기쁘고 자유롭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는 가장 능동적인 의미를 담은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걸어갈 길이 두렵고 무서워서 주님께 용기를 청하기 위해 필리피서 4장 13절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고 앞만 보며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또다른 시련이 다가와 좌절해서 쓰러졌을 때도 항상 ‘주님은 내 곁에 함께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시련 또한 나를 단단하게 성장시키시려는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써 제 삶은 변화되었고, 그분께서는 그 체험을 노래로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늘 약하고 부족한 저이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주님께 더 의탁할 수 있었고, 그것이 저에게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 안에서 찬양 사도로 많은 초대를 받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때론 박수도 많이 받고, 감사하다는 피드백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칭찬에 흔들리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늘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으로 삶의 모든 순간에 용기를 낼 수 있는 지혜를 청해 봅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하게 해주시고 제가 할 수 없는 일은 체험할 줄 아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아멘.”

한  
컷  
교리

주간 첫날인 일요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담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어 나누려고 모였다.”  
(사도 20,7)

# 알고 선택하기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홍보국장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바라고 추구하지만, 그것을 모두 의식하고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네 삶이 그만큼 다채롭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선 복잡다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상의 소소한 가치들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커다란 몇몇 가치만 또렷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들이 나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주고 '나'라는 존재를 더 완성으로 이끌어가면 참 좋을 텐데, 현실은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추구하고픈 가치들이 여럿이어서 우선순위를 매기기 어려워 그렇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치를 착각하는 경우 혹은 스스로 속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한 예로 자녀를 위한 '교육열'을 들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인기 있었던 '000 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듯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은 낫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 매우 큰 노력을 기울인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때 부모가 추구하는 가치는 자녀의 '교육'일 수도 있고, 명문대학교를 나와 대기업에 입사하는 자녀의 '성공'일 수도, 이를 통한 '자녀의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종종 경험하는 것처럼, 자녀를 위한 행동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부모 자신을 위한 행동인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보상 심리'일 수도 있고, 다른 집 자식보다 내 자식이

낫다는 것을 통해 느끼고픈 '우월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녀 양육', '교육', '행복'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입니다.

가치를 착각하거나 그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는 우리 삶에서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성실함과 책임감'이라는 가치인 줄 알았는데 실은 '불안 해소'가 주목적이었다거나, 관계 안에서의 '수용과 관대함'이 아니라 '좋은 이미지'를 찾는 것, 공동체의 '친교와 화합'이 아니라 '자기방어와 보호' 추구인 경우 등, 그 예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는 늘 성찰과 식별이 필요합니다. 어떤 가치를 우선하여 추구할 것인가를 선택하려면 '내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무엇인가'를 참되게 아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뿌리에 있는 참된 속마음을 아는 것이 필요하죠. 자녀의 '교육'이나 '행복'이라는 가치로 알아들을 때와 나를 위한 '보상', '우월감'이라는 실제 내용으로 알아들을 때 그 가치들의 우선순위와 나의 선택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속과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시편 64,7)

상단 QR코드를 통해 지난 연재글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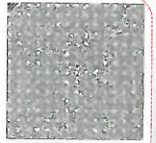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드리며 함께 기뻐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기운과 함께 부활이 찾아왔습니다. 산과 들에 피어나는 꽃들과 풀들은 대지와 자연에 피어나는 생명을 노래합니다.

이삼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60세에 이른 분들에게 ‘환갑’ 잔치를 해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네 평균 수명이 늘면서 이제는 그런 풍경을 보기 어렵습니다. 70세에 하는 ‘고희’ 잔치도 ‘아직 젊고 앞으로 갈 길도 멀리 남았는데 남사스럽다.’며 피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만큼, 이제 우리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이 86세 정도, 남성은 81세 정도라고 통계는 이야기합니다. 건강 기대 수명도 73~74세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10~20년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80~90년 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영원히 끝난다면 우리 각자의 삶이 10~20년 더 늘어난다는 사실이 수천, 수만 년의 역사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영원함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나의 기대 수명이 몇 년 더 늘었다는 점이 이 지구, 이 우주의 역사 안에 무슨 의미를 더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영원한 생명’과 연결 지어 준 사건이기



에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 수명, 기대 수명이 늘었다는 사실은 '살아 있는 동안의 건강'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연결'될 때에 참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이 풍진 세상에 눈감고 내세로 도피케 하는 마약(마스)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더라.' 하는 모습으로 가꾸어나갈 우리의 책무를 자각하고, 더욱 이 세상에서의 삶에 책임을 다해 투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또 실패, 좌절, 병고, 이별, 사랑의 깨어짐 등 등 '죽음'과도 같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죽음과도 같은 현실'이 '끝'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한반도의 분단 현실도 중국에는 '생명으로 하나됨'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의 바람과는 별개로 강대국 사이의 국제 관계 안에서 비롯된 분단의 역사로 인해 '죽음과도 같은' 대립과 분열이 아직껏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듯이, 한반도 분단이라는 '역사의 죽음'과도 같은 상황도 언젠가 새 생명과도 같은 '평화 공존과 공영'이 가능하리라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진정한 대화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다른 이들을 보듬고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

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자주 "반대자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험담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도 정파적 이익을 뒤로하고 국민의 민생을 우선하여 잘 살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곧 치르게 될 총선에서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잘 행사해서 국민의 참 봉사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과 사회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그대로 끝나지 않음을 증언합니다. 그렇기에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희망 안에서 '하느님 보시기에 좋더라.' 하는 말씀에 걸맞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투신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활의 새 생명과 희망이 어려움 중에 계신 모든 분들, 특별히 북녘 동포들에게도 따듯이 퍼져가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모든 피해자들에게도 따듯이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 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베드로대주교

정순택



## 우리 마음이 주님께 붙어 있다면

글 홍보위원회 언론홍보팀 | 사진 가톨릭평화신문 제공

예전에 김밥 속에 단무지 하나  
요새 김치에 치즈 참치가  
세상이 변하니까 김밥도 변해

2003년 발매된 '더 자두'의 '김밥'이라는 노래 가사 일부입니다. 이후에도 김밥의 변천사는 계속되어 요즘에는 돈가스나 새우튀김이 들어간 김밥까지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김밥의 속 재료는 변하고 변했지만, 그와는 다르게 오랜 시간 변하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김밥 할머니' 고(故) 박춘자 데레사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김밥 할머니'로 유명한 데레사 자매님은 어린 시절부터 생계를 위해 김밥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열 살 무렵부터 일을 했으며, 어른이 된 후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하고 혼자서 삶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매님은 남한산성 인근에서 김밥 장사를 했고, 나중에는 개인 가게를 차리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보통 좀 더 편안한 삶을 생각합니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로 나의 삶을 더 안락하고 윤택하게 바꾸려고 하지요.

하지만 자매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배고팠던 어린 시절, '먹을 것을 사 먹는 순간 느꼈던 행복, 그 행복을 남한테도 주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자매님은 김밥을 팔아 모은 돈과 재개발 지역 보상금

으로 받은 돈 6억 3천만 원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어린이와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나누는 일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었다."는 박춘자 데레사 자매님. 가게를 접은 후에는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직접 보살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자매님은 마지막으로 남은 자신의 전재산인 월세 보증금마저도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한 뒤 영면에 들었습니다.

삶의 굴곡진 순간에도 자매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냈고, 그렇게 해서 얻은 모든 것을 자신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내어놓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만큼 그에게 내가 가진 가장 값진 것을 주고 싶어 하지요.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어주셨고, 외아들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요한 3,16; 로마 5,8 참조)

그런 면에서 자매님의 삶은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과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을 사랑했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 사랑의 정점인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밥알이 김에 달라붙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주님께 꼭 붙여놓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의 삶을, 내 이웃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기쁜 부활 시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주교회의 2024년 춘계 정기총회 결과

- ① 124위 복자 시복 10주년을 맞아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시성을 기원하는 담화문을 시복 기념일인 2024년 8월 16일에 한국 천주교 주교단 명의로 발표하기로 함.
- ② 최양업 토마스 사제의 선종일인 6월 15일을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 시성을 위한 전구 기도의 날'로 정하였으며, 이날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기로 함.
- ③ 한국 주교단의 사도좌 정기방문[2024년 9월 16일(월)~21일(토)]에 관하여 논의함. 2015년 이후 9년 만에 실시되는 이번 사도좌 정기방문은 사도들의 묘소 참배, 교황님 알현, 교황청 국무원을 비롯한 10여 개 부서 방문, 로마 한인공동체 미사, 성지 순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
- ④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에 관하여 논의함. 본 대회는 서울대교구(지역조직위원회, LOC)에서 맡아 준비하고, 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위원장 김종강 주교가 교구 대회(Days in Dioceses) 준비 책임자가 되어 교구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기로 함.
- ⑤ 한국 천주교회의 세월호 참사 10주기 연대 방법에 관하여 논의함. 세월호 참사 10주기 담화문을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명의로 발표하기로 하였으며,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주관하여 위원장 김선태 주교의 주례

로 4월 15일(월)에 세월호 참사 10주기 미사를 봉헌하기로 함. 한편, 4월 16일(화) 각 교구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미사를 봉헌하고, 10주기 행사는 교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시행하기로 함.

- ⑥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생명운동본부의 회칙(개정)을 승인.
- ⑦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와 청소년사목위원회에서 마련한 다음의 2024년 주교 현장 체험 프로그램에 주교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기로 함.
  - 새만금 갯벌(해창, 수라 갯벌) 방문(2024년 4월 30일)
  - 인천광역시 청소년 자립지원관 방문(날짜 미정)
- ⑧ 주교회의 2024년 춘계 정기총회로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총장 이철수 스테파노 신부(수원교구, 1990년 사제 수품)의 사무총장 연임(주교회의 2027년 춘계 정기총회까지 3년 임기)을 승인.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82년 4월 3일 양기섭 베드로 신부(77세)
- 2012년 4월 7일 이석충 사도요한 신부(89세)
- 2022년 4월 1일 유봉준 토마스 신부(92세)

## 교구청 알림

### 가톨릭신자 소방 공무원 기도모임

문의(접수): 02)727-2081, 010-6234-6910 직장사목팀 큰사랑봉사회 / 지도: 강혁준 신부

### 2024 신구약 성경통독 강의

내용: 신구약 성경 전체 / 강: 조창수 신부  
 때: 매주(월) 또는 (화) 13시~15시, 월요일성경 온라인 라이브 동시 강의 / 회비: 12만원(연회비)  
 곳: (월) 가톨릭회관 3층, (화) 예수회센터 106호  
 문의: 010-8889-5425(문자) 성경통독 아카데미

### 브뤼기에르 주교 시복 기원 공모전 및 순교자현양미사 안내

1) 초대 조선교구장 브뤼기에르 주교 주제어, 독후감 공모전  
 주제: 하나님의 종 '브뤼기에르 주교' 시복 기원 및 현양  
 응모기간: 1월28일~4월28일(접수분까지)  
 응모자격: 청소년부, 일반부  
 상세안내: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참조  
 2)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때: 매월 첫째주(화) 4월2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 가톨릭교육자회 소개 및 행사(학교사목부 CCE)

1) 가톨릭교육자회 안내  
 가톨릭교육자회는 학교 신앙인 교직원(교사·행정직)들을 위한 모임으로, 예수님을 닮은 교육자가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단체입니다. 초등학교를 위한 '초등교육자회' 중·고등학교를 위한 '중등교육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사·피정·성지순례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가톨릭교육자의 날 신청  
 내용: 신앙인 학교 교육자들이 모여 미사·특강과 함께 하느님이 주신 교육자의 소명과 축복을 나누는 시간 / 대상: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중 신자라면 누구나  
 때: 4월20일(토) 9시~16시, 계성초등학교(전철 9호선 신관포역) / 회비: 3만원  
 3) 가톨릭교육자회 신규가입  
 문의: 02)566-5456, 02)553-7320 학교사목부  
 4) 가톨릭교육자의날 접수 문의  
 홈페이지 팝업창(www.kycs.or.kr) 참조

###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취소

손희송 베네딕도 주교 이임 감사미사로 인해 2024년 4월4일 오후 2시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는 취소되었습니다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내 마음의 복된 본당' 미사)

때, 곳: 1412차 미사 4월2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서울대교구 안양본당, 은율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복된본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 갤러리1898 전시 및 공모전 안내 / 문의: 02)727-2336, 7

1) 갤러리1898 전시 안내  
 남준우 개인전: 1전시실  
 전경애 개인전: 2전시실  
 신경미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3월27일(수)~4월4일(목)  
 2) 2024 갤러리1898 성미술 청년작가 공모전 안내  
 공모 주제: 성미술 관련 / 접수기간: 4월11일(목)~18일(목)  
 자세한 내용은 굿뉴스 갤러리1898 공지사항 및 인스타그램(@gallery1898) 참조

###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4년 영성심리아카데미  
 교육명: 기도를 시로 쓰기, 우리의 마음건강을 위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하는 법, SNS를 이용한 신앙인의 글쓰기, 주님의 빛으로 그린 그림(사진찍기), 자기이해와 자기수용, 영적글쓰기, 현대미술-신앙을 말하다 등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 문의: 02)727-2126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 함성기도 율리정 / 문의: 010-4565-8898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지도: 이승구 신부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교) / 회비: 1만원

직장인	4월1일(월) 13시30분~16시30분
일반인	4월7일(일) 13시30분~16시30분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정기총회 및 후원회원 월례미사

때, 곳: 4월1일(월) 10시(총회) · 11시15분(미사),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 제7회 생명수호 동영상 공모전

주제: 가톨릭 생명윤리에 맞는 생명사랑, 생명존중, 생명수호를 주제로 만든 순수창작 영상물  
 대상: 생명수호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가톨릭 신자 아니어도 가능) / 분량: 5분 이내 동영상  
 접수: 8월16일~29일 / 시상내역: 총 상금 600만원  
 문의: 02)727-2354 생명위원회 사무국 / 자세한 내용은 생명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orlife.or.kr) 참조

### 명동대성당 도슨트 상반기 정기일정 안내

명동대성당의 숨겨진 예술품들을 발견해보는 시간, 명동대성당 가톨릭미술이야기  
 문의: 02)751-4104 홍보위원회

도슨트 프로그램 (2024 상반기 정기일정 안내)	4월13일(토)~6월8일(토) 매주(수) 오후 2시 · (토) 오전 10시40분 소요시간: 약 1시간 / 인원: 회차당 20명 신청방법: 도슨트홈페이지 직접 접수 또는 QR코드 이용하여 접속 후 신청 / 준비물: 송신기에 연결할 수 있는 3.5mm 유선 이어폰
-----------------------------	---

### '2024 · 봄'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 문의: 02)727-2047

#### 1) 영성 강좌

청년 Hello 7도 2024	매월 첫째주(화) 19시30분~2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소성당 / 문의: 02)727-2031 박 스테파나아 수녀
자기 돌봄을 위한 마음 챙김	4월9일~5월28일(화) 19시30분~21시
예수님과 함께 기도 훈련	4월9일~5월28일(화) 19시30분~21시
주님께 다가가는 글쓰기	4월11일~5월16일(목) 19시30분~21시

#### 2) 신앙, 인문학을 만나다

건축, 교회사, 신학	4월4일~5월30일(목) 19시30분~21시
-------------	--------------------------

#### 3) 문화 강좌

나만의 이콘 만들기(원데이)	4월17일(수) 13시30분~16시30분
나만의 부활 십자가 만들기(목공예)	4월25일~5월16일(목) 19시~21시
생활 악기 성가 합주반(낮반)	4월25일~5월30일(목) 16시~18시
킬렘바 & 베그라라 성가 연주기초반	4월25일~5월30일(목) 19시~21시
우쿨렐레 성가 연주기초반	4월25일~5월30일(목) 19시~21시
초보를 위한 디지털 펜 드로잉(낮반)	5월22일~6월19일(수) 15시~17시
아크릴 물감으로 그리는 십자가의 길(저녁반)	5월22일~6월19일(수) 19시~21시

**인준단체 알림**

**모임**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Ester 음악 피정**

때, 곳: 4월6일(토) 15시~18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내용: 한덕훈 신부(인천교구) /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AYG)

**일일 피정**

때: 4월7일 10시~16시30분(9시 미사 참석 가능)  
곳: 스승예수제자수녀회(주최, 서울 미아리 본원)  
내용: 강의, 성체조배, 자기 보기 훈련  
회비: 3만원(선착순 50명 전화 접수)  
문의: 010-9742-3842, 02)984-4801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주제: '천주님의 성당은? 애덕이 가득한 우리 마음이다.'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회비: 1만원  
때, 곳: 매일 둘째주(토) 4월13일 14시~18시, 구산성지  
찬양: 고영민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인천교구 지혜의샘(복방선교기도공동체) 프로그램**

곳: 지혜의샘(부천시 경인로 61-1) 5층 / 010-3248-9705  
1) 부활 대피정: 4월8일(월) 10시~17시30분  
강사: 김응열 신부, 한영임 회장  
2) 영적 치유 특별 대피정: 4월29일(월) 10시~17시30분  
강사: 박효철 신부, 한영희 신부, 한영임 회장

**2024년 마리아 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대피정**

주제: 예수 그리스도 홀로 구원자이시다.(메시지 596번)  
미사: 구요비 주교(서울대교구 주교)와 마리아사제운  
동 사제단 / 강의: 양창우 신부(성골롬반외방선교회)  
때, 곳: 5월5일(일) 9시~17시, 동성고등학교 대강  
당(해화동) / 문의: 02)470-5851, 010-3136-7869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마리아사제운동(M.S.M)

**토이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4월2일 양승국 신부 4월9일 배광하 신부

**교육**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4월1일부터 (월)~(토) 10주  
주최: 아카나소르간연구소 / 문의: 02)338-3793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월)·(화)·(수)·(금)·(토) 13시30분  
곳: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가톨릭독서아카데미 수강생 모집(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

때, 곳: 19시30분~2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회비: 각 15만원(총8회) / 문의: 010-2309-4509  
1) 뉴스문해력 키우기  
개강: 4월9일(화) / 김지영(전 경향신문 편집인)  
2) 생활과 문학-일상 속 글쓰기  
개강: 4월11일(목) / 김재홍(시인·평론가)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 / 문의: 02)753-8765**

말씀: 김영수 교수 / 주제: 나이 들과 희망  
때, 곳: 4월7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3층

**2024년 순교영성 아카데미(순교영성특강)**

순교영성 대중화 교육을 위한 순교신심운동  
주제: 순교영성에 관한 다양한 주제(성경·교의·역사·영  
성·인문사회과학 등) / 강사: 두봉, 정희완, 송봉모, 양승  
국, 유은희, 백남일, 김성태, 조한진, 조성일, 김재덕,  
윤진, 박희정, 한진욱, 이경재, 류지인, 한장호, 윤홍민  
때: 4월부터 매일 둘째·넷째주(목) 14시~16시  
곳: 순교성지 새남터성지 / 전화 또는 홈페이지  
(www.kmartyr.com) 상세프로그램 및 신청 가능  
문의(접수): 02)3275-1485 순교영성연구소

**2024학년도 후기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4월15일(월)~26일(금) / 전형일: 5월17일(금)  
곳: 최양업홀(전철 2·5호선 중정로역, 1·4호선 서울역 하차)  
문의: 02)740-9704(http://songsin.catholic.ac.kr/music)  
석사 과정(5학기) / 오르간, 합창지휘, 작곡(CCM 작곡 포함)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해외가톨릭보딩스쿨 학교 설명회**

문의(예약):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 레지오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학교설명회 4월13일(토) 오전 11시(예약 필수)  
현지 학교 관계자 참석  
정규입학 초5~고2 / 미국·아일랜드(6개월 이상)  
여름캠프 초3~중2 / 남·더블린, 여·보스턴

**예수회 정기강좌·피정**

1)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정기강좌 / 문의: 02)3276-7799  
때, 곳: 14시(파견미사 16시), 예수회센터 103호

4월11일(목)	영신수련의 원리와 기초- 이해와 실천적 적용	권오연 신부
5월9일(목)	'상처와 용서' 다시 보기	송봉모 신부
6월13일(목)	그리스도교 전통안에서의 꿈과 환시	홍기영 교수

2) 영신수련동반자 양성센터 4박5일 피정

때, 곳: 7월17일(수)~21일(일)·7월26일(금)~30일  
(화), 예수회센터 / 문의: 02)3276-779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024년 봄 특강**

때, 곳: 5월22일~6월19일 매주(수) 5회(13시30분~15시  
30분(강의)·12시10분(미사), 교육회관(정동) 1층 성당  
회비: 5만원 / 문의(접수): 02)6364-2204, 010-3781-2204

5월22일	빛과 어둠의 화가 카라바조	고종희 교수
	성 김대건 신부, 바티칸에 서다	한진섭 조각가
5월29일	바티칸과 바로크 미술-베르니니 중심	양정무 교수
6월5일	미술이 자연을 전하다	이동욱 신부
6월12일	당신의 빛으로 빛을 보입니다-건축과 빛	김광현 교수
6월19일	성 프란치스코와 르네상스	기경호 신부

**모집**

서초동성당 첼로 오케스트라 / 문의: 010-7743-2302  
대상(유급객원): 첼로(1명), 더블베이스(1명), 팀파니  
(1명), 호른(1명), 트럼펫(1명) / (일) 21시 미사

**무지카사크라 서울 합창단 단원 모집**

르네상스시대 무반주 다성음악전문 무지카사  
크라서울 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만 55세 미만 남녀 교우 / 지휘: 신기호 신부  
연습: 매주(토) 오전 10시, 최양업홀  
문의: 010-9464-0680(www.musicasacra.kr)

**미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4월5일(금) 14시~16시 / 문의: 02)929-2977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폰벤두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미사**

때: 4월6일(토) 10시 /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곳: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 문의: 02)793-2070

**절두산순교성지 로사리오회 예수성심 신심미사**

내용: 연례과 가정을 위한 기도와 미사  
때, 곳: 4월5일(금) 11시30분, 절두산 성지(전철 2  
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문의: 02)3142-4434

**첫토요일 신심미사·자비주일 행사**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주최: 서울대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1) 첫토요일 신심미사: 4월6일(토) 9시30분~12시  
곳: 가톨릭회관 3층 / 내용: 켈기도, 미사  
2) 자비주일 행사: 4월7일(일) 13시~16시  
내용: 음악과 함께하는 자비주일(고해성사·미사)  
곳: 가톨릭회관 7층

**안내**

**2024년 해화동성당 혼인미사 예약**

혼인미사: 매주(토) 11시, 14시 / 문의: 02)764-0221  
연중 수시 접수 / 성당 홈페이지 참조  
우수한 건축양식과 미술품으로 가득찬 해화동  
성당에서 혼인미사 예약을 받습니다 / 혼인미사  
전용 신부대기실, 폐백실, 주차장, 피로연장 완비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직원모집**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단(상복구) 주방근무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주방근무자 0명  
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  
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  
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4월14일(일)까지 우  
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  
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매일 둘째주(일) / 시간 상의	수녀원(서울)	010-5604-1882
성령 선교 수녀회	4월6일(토) 14시~16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26길10	010-2691-4895 (문자)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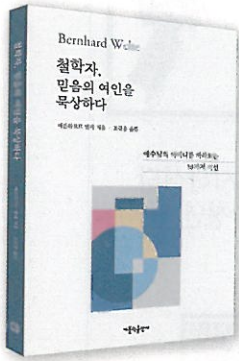
## 2024년 3월 추천 도서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요한 20,8) - 공동번역 성서

### 신간

### 부활 시기 추천 도서



#### 철학자, 믿음의 여인을 목상하다

베른하르트 벨테 지음 | 1만6천원

성모 신심을 바로 세울 때  
열리는 은총의 시간

하느님의 은총을 신뢰한 여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바라보는 10가지 시선



####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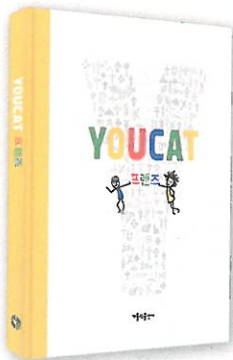
파트리크 스발키에로 지음 | 2만원

신앙인을 위한  
하느님의 영적 표징 '기적'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적을 통하여  
만나는 하느님의 메시지

### 새 학기 추천 도서

### 새 학기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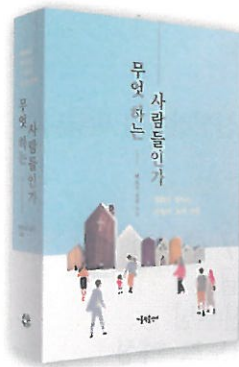


#### YOUCAT 프렌즈

YOUCAT 재단 지음 | 1만8천원

10대를 위한 쉽고 재미있는  
가톨릭 교리서!

가톨릭 교리의 핵심을  
159개의 질문과 다양한 사진으로 담다



#### 무엇 하는 사람들인가

박도식 지음 | 2만원

그리스도인이려면 꼭 읽어야 할  
가톨릭 스테디셀러

신앙이 있는 삶의 가치를  
대화의 형식으로 쉽게 풀어낸 교리책

순교자현양위원회 주관

### 초대 조선교구장 브뤼기에르 주교 주제어·독후감 공모전

주제

하느님의 종 '브뤼기에르 주교' 시복 기원 및 현양

응모 기간

2024년 1월 28일(주일) ~ 4월 28일(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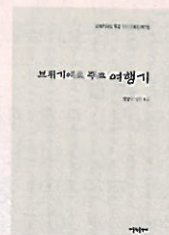
※ 자세한 사항은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 조선 초대 교구장이자 하느님의 종 '바르톨로메오 브뤼기에르 주교'

공모전  
지정 도서



브뤼기에르 주교 서한집  
2만원



브뤼기에르 주교 여행기  
2만원



초대 조선 교구장  
브뤼기에르 주교와  
함께하는 9일 기도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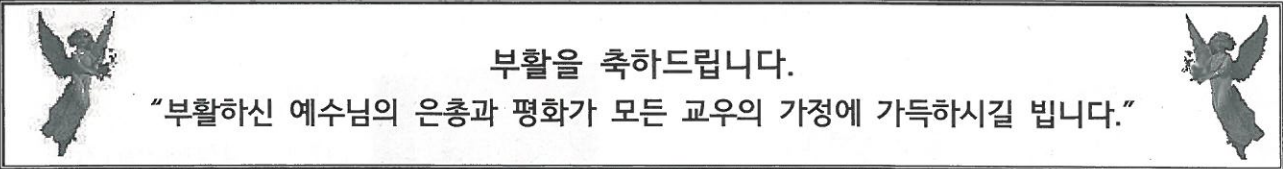


제2시대문·미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 임 신 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부주임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안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칭찬하자!”

◎ 연례회 미사 : 4월 2일(화) 오전 10시  
매월 첫번째 화요일 10시에 연례회 미사(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 성모신심미사 : 4월 6일(토) 오전 10시

◎ 4월 10일(수) 10시 미사는 없습니다.  
사무실 휴무입니다.

◎ 2024년 전신자 영성서적 읽기  
1. 알고 싶은 가톨릭 신앙 I, II  
2. 상처가 별이 될 수 있을까?  
3. 자기 자신 잘 대하기  
※ 도서를 구입하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 4월 6일(토)

◎ 레지오 전단원 교육  
일시 : 4월 7일(주일) 오후 1시 / 대성전  
강사 : 박준양 세례자요한 신부님  
- 서울 세나투스 지도 신부님  
주제 : 레지오 마리아 단원의 시노드 여정  
- 회심, 친교, 선교

◎ 2024년 연희동성당 요리대회 개최  
남성 연령세대별 5개팀이 요리실력을 뽐냅니다.  
요리대회 후에는 저녁식사 자리가 마련됩니다.  
연희동성당 신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 4월 7일(주일) 오후 4시~8시 / 지하식당  
문의 : 기획분과장 (010-6470-4114)

◎ 연성회(70대) 모임  
일시 : 4월 11일(목) 오후 5시 30분 / 201호  
※ 2부에는 식사가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송경원 베드로 회장 (010-5228-4707)  
김무영 요셉 총무 (010-3891-4300)

◎ 청년 부활 마니또  
일시 : 3월 31일(주일) 청년 미사 후 / 지하식당  
대상 : 청년 누구나(사순 성경필사 참여한 청년 필참)

◎ 청년 봄 피정  
일시 : 4월 27일(토)~28일(주일)  
대상 : 청년 누구나  
장소 : 복자사랑 피정의 집  
신청기간 : ~ 3월 31일(주일)  
참가비 : 45,000원 / 카카오페이 7979-88-91578  
문의 : 비아 연합회장 (010-2550-2375)



◎ 청년 레지오 셋별Pr. 단원 모집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님을 따라 함께 더욱 더  
행동하고 기도드릴 청년 단원을 기다립니다.  
회합 : 매 주일 오후 4시 30분 / 206호  
문의 : 안토니오 단장 (010-5377-8909)



◎ 교무금 책정 현황 (2024. 3. 24)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3년 책정율	2023년 납부율
1,993	639 (32.1%)	596 (29.9%)	43.7%	42.3%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감사헌금 (3월 18일~24일)

곽선모	오천원	박영철	이백만원
엄순자	일십만원	임세경	일십만원
익명	이십만원	안예진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이효순	일십만원
김경만	삼십만원	신옥분	삼만원
윤종해	삼십만원	은희봉	오만원

◎ 우리들의 정성(주님수난성지주일)

교 무 금	8,917,000원
주일헌금	5,481,100원
성지주일2차헌금	1,843,000원

입당	135	봉헌	132,129,130	성체	138,128,136	파견	134
----	-----	----	-------------	----	-------------	----	-----



이 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 하세